

신차·GMC로 적자 탈출... 한국지엠 “내년부터 성장 본격화”

렘펠 사장, 한국지엠 청사진 제시
신차 CUV 연 50만대 생산 목표
GMC 도입으로 멀티브랜드 전략



로베르트 렘펠 한국지엠 사장이 22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GM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 9년 만에 적자 탈출과 함께 흑자전환에 나선다. 그 중심에는 한국지엠의 신차 출시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와 쉐보레, 캐딜락, GMC의 멀티 브랜드 전략이 있다. 로베르트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22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GM 브랜드 데이'에서 수출 확대와 GMC 브랜드 도입으로 확장되는 멀티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한 GM 한국사업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로베르트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도전적인 외부 사업 환경 속에서도 올해 손익분기점 달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2023년부터는 성장 비즈니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렘펠 사장은 “2018년 시작된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내년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CUV를 통한 수출 확대, 쉐보레와 캐딜락, GMC 등 멀티 브랜드 전략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며 “도전적인 외부 사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손익분기점 달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2023년부터는 성장 비즈니스로 전환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을 경영정상화로 이끄는 것은 내가 가진 임무이자 사명”이라며 “한국지엠은 미래에 대한 GM의 혁신적인 시각, 전동화와 자율주행차 전략,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과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 50만대 규모의 생산과 멀티 브랜드 전략 등을 종합했을 때 매우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렘펠 사장은 GM의 전-전동화 미래 성장 전략과 이에 발맞춘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 이어 GM 한국사업장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설명했다. 렘펠 사장은 “GM은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플랫폼 이노베이션을 선언하며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한국지엠도 플랫폼 이노베이션의 일부이자 사업을 재창조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GM은 뛰어난 전기차 포트폴리오와 함께 얼티엄 및 얼티파이 플랫폼을

통해 교통사고 제로, 탄소배출 제로, 교통체증 제로라는 트리플 제로 비전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350억 달러(약 40조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또 그는 “GM은 얼티엄 플랫폼을 통해 쉐보레 실버라도EV, 이쿼녹스EV, 블레이저EV를 비롯해 캐딜락 리릭, 셀레스틱, GMC 허머EV 등 다양한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한국지엠도 2025년까지 전기차 10개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 고객들에게 전기차 선택의 폭을 넓히며 국내 수입 브랜드 중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라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렘펠 사장은 “한국지엠은 트레일블레이저와 내년부터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생산될 차세대 글로벌 신차 CUV로 연간 50만대 규모의 생산을 달성해, 이를 내수 및 전 세계 시장에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한국지엠은 1만2000여 명의 직원과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이날 프리미엄 픽업·SUV 브랜드 GMC의 국내 도입을 공

식 선언, 첫 번째 모델인 ‘시에라 드날리’를 공개했다.

이날 국내 최초로 공개된 프리미엄 풀사이즈 픽업트럭 시에라 드날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GMC 시에라 드날리는 거대한 진화를 거쳐 북미에 출시된 5세대 최신 모델이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와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한다.

해당 모델에는 북미 인증기준 420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6.2리터(L) 대용량 자연흡기 V8 기술인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다. 프리미엄 픽업트럭에 걸맞은 다양한 최첨단 편의 사양이 탑재될 예정이다.

GMC 고객은 전국 400개 이상의 한국지엠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췄다. 빠르고 손쉽게 차량 정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쉐보레 브랜드의 수입 제품인 이쿼녹스, 콜로라도, 트래버스, 타호에 적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GMC만을 위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PO 연기... 내실 다져 ‘퀀텀점프’ 노린다

데이터스트림즈 사업다각화 속도
회사 방향에 대해 다양한 방법 모색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 /최빛나 기자

데이터 관리 기업 데이터스트림즈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다각화에 속력을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IPO를 연기하는 대신 글로벌 시장을 집중 공략해 퀀텀점프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22일 서울 서초구 데이터스트림즈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글로벌 데이터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는 “데이터 저장소 형태가 데이터 패브릭 시대로 진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데이터스트림즈가 가진 선도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훌륭한 기술 회사를 넘어 위대한 글로벌 데이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이를 위해 IPO는 연기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회사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 초기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빅데이터 토탈솔루션 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시장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결과, 국내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중

대형 고객사를 800여 개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빅데이터 관련 매출 평균 증가율은 67%에 달한다. 데이터스트림즈는 이 같은 저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패브릭 시장에서도 1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올해 상반기에만 NH농협경제지주, 임업진흥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서 굵직한 수주를 했다”며 “이를 통해 데이터스트림즈는 유통과 물류 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이터스트림즈는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스마일게이트, 코나아이, SK실트론, LX판토스 등에서 유의미한 사업을 수주했다.

데이터 저장소 시장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시작해 데이터 레이크를 넘어 데이터 패브릭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종호 과기부 장관,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손진영 기자 son@

남궁 대표 “게임-메타버스, 정책 구분돼야” (카카오)

업계, 게임규제 영역 커질까 우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메타버스 영역과 게임이 정책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우려를 대신 전달 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궁 카카오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큰 틀에서 디지털 플랫폼업계의 자율규제에 관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렸다”라며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이는 메타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을 대신 전한 것으로 보

여진다. 현재 정책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 영역과 게임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게임규제가 메타버스 영역까지 번질까 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임산업의 경우는 등급분류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규제가 까다롭다.

일각에서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및 아이템이 이미 메타버스가 구현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메타버스 업계에서는 게임과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 있다는 엇갈린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궁 대표를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앞장

양천구 신영시장 파일럿 시행

카카오가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소통을 돕는 ‘소신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카오임팩트, 온라인 지식 교육 플랫폼 MKYU(MK&YouUniversity), 신영시장 상인회와 함께 4주간 협약식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일럿 시행 대상으로 양천구 신영시장을 선정하고, 오는 7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카카오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기여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의 상생 방안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및 지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5년간 총 1,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집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소신상인 프로젝트는 본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의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다양한 모바일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의 첫발로는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비롯해 교육,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최빛나 기자